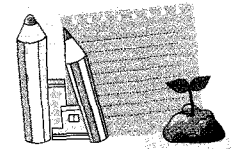


조경수소재유통의 필요성과 국토해양예산 및 범위



박형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육성부)

1. 조경수소재 생산

우리나라의 조경수소재(조경수목, 분재, 야생화 포함)의 총생산액은 2005년 기준 7,852억원이며, 이 중 조경수목 생산액은 7,257억원이다. 조경수소재는 임산물 총생산액 3조 471억 중에서 순임목 8,999억원(30%) 다음으로 높은 26%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임업통계연보 2006, 산림청). 또한 조경수목의 생산액은 용재 등과 같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향후 대규모의 조경사업 등 여러 여건으로 볼 때 앞으로도 이 시장의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관목류 조경수목의 생산량은 3,253만본으로 조경수목 총생산량 4,712만본의 69%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목형 조경수목은 단기 임업소득원으로서의 임업적 중요성이 매우 크고, 조경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하여서도 생산시스템 및 관리기술의 적극적인 전문화·선진화는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2. 조경수 유통

▶ 조경수목 생산 및 유통 현장에서는 신도시 조성, 대형 공원 등과 같은 정부주도의 대규모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이에 필요한 조경수목의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에는 조경수목의 품귀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가격 또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단위 시공되는 조경수 관목의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급변하는 조경수목 수요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수종 개발이나 대형 공사에 공급될 수 있는 특정 수종의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진달래, 생강나무 등과 같은 일부 관목들은 산에서 불법채취 되는 경우도 다수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현재 도시의 급속한 개발로 생활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녹지 대상지역이 절대 부족하다. 이에 자투리 생활 공간 주변의 녹화를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시·군 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녹화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국·공유지 녹화지역은 식재시기·장소에 관계없이 식재 후 즉시 활착·생육할 수 있고,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주위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목이 필요하다. 또한 절개지, 옹벽, 방음벽, 건물외벽, 교량 등에 덩굴식물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도시개발의 확대로 고립 단절된 도시내외의 산림을 연결하여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로수를 조성하고 있다. 가로수는 그 대상수종이 단순하고 정형화 되어있기 때문에 최근의 가로수 식재는 한정된 공간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교목형 가로수 하단, 중앙분리대에 다양한 관목, 덩굴류의 식재를 통한 복층형 가로수를 유도하고 있다.

• 그리고 학교숲, 마을숲 등 다양한 형태의 숲이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들 숲은 조형적 조경수목 및 장식적인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있어 보다 자연성을 연출하고 생태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교·관목의 자생수종이 필요하다.

▶ 향후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신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용산공원 등 대규모로 조경수목의 수요가 예상되는 국가적인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지 않을 경우 조경수목 생산 및 유통 시장의 극심한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향후 주변 국가들과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 조경수목 시장은 상당한 혼란이 가중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조경수목 시장의 붕괴도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적정 조경수목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적기에 대량 생산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 최근 건축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도시는 고층 또는 초고층의 건축물로 숲을 이루고 있어 도시 내 새로운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일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향후 도시녹화의 중요한 대상지역이 현재까지의 정원, 공원, 가로수뿐만 아니라 건물의 옥상·벽면, 건축물의 실내공간 등과 같은 인공지반에서도 필요로 하고 있다.

• 이들 인공지반은 수목의 생육장소로는 매우 혹독한 환경조건이고 건축물의 옥상·벽면과 같은 인공지반에서는 건축물의 구조, 형태에 적합한 하중제한이 있기 때문에 초경량의 관목 및 덩굴형 컨테이너 조경수목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에서 조경수목 생산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조경수목 컨테이너 생산기술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말부터 일부 대학과 산업체를 중심으로 하여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경수 생산기술에 대한 연구 역사가 짧으며 그 결과가 미미하고, 우리나라 조경수 생산현장 여건이 열악하여 기술이 널리 보급·확대되지 못한 실정이다.

•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수목 요구도가 높아지면서부터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 조경수목 생산현장에

서는 이미 컨테이너 생산기술이 보편화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소형 원예·관상용 식물 생산 외에는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종 및 생육환경에 적합한 관목 및 덩굴형 조경수목 생산에 컨테이너 재배기술의 개발 및 도입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 현재 조경수목 생산산업 현장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생산 및 굴취에 종사하는 전문적인 인부는 한정적이며, 노령화 되었으며, 인건비는 높게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날 수목의 식재, 굴취 등과 같은 현장작업은 3D작업으로 인식되어 조경수목 생산후계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조경수목 생산산업의 쇠퇴가 예상되며 이는 조경수목 생산산업 자체의 침체는 물론 관련 산업분야의 동반 침체로 이어져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생산작업의 표준화와 작업환경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 녹화 및 조경현장에서 보면 식재된 수목의 활착과 생육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굴취기술 뿐만 아니라 현지 식재 및 사후관리 기술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 따라서 조경수목을 노지 또는 용기에 식재하였을 때, 빠른 시간 내에 뿌리가 새로 자라고 활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인공상토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인공상토 재료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실정에 우리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림부산물, 특히, 현재 벌기령에 달한 리기다소나무림을 비롯하여 낙엽송 간벌목, 산 불피해목 등을 재활용한 인공토양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 조경수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조경수목 생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활발하게 개발되어 적용되어야 하나 아쉽게도 기술개발 현장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시점에 본 과제를 통하여 제시되는 연구결과들은 국내에 새롭게 소개되는 결과들이 많으며, 국외적으로도 충분히 소개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 특히 관목류 및 덩굴류 조경수목 대량생산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는 국외에서도 흔하지 않는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사료된다.

▶ 또한 국내에 이러한 기술개발 현장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임직원 및 연구조원들은 앞으로 이 분야를 지속적으로 선도적인 위치에서 담당할 기초연구를 익히게 된 소중한 기회로 매김 될 것이다.

4. 국토해양부 분야 예산배분 현황

▶ 2010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5조1,000억 원으로 기약을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부 기조로 삼고 있는 만큼 4대강 사업과 녹색교통활성화,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더불어 정부는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SOC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특히 4대강사업에 6조4,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굵직한 정부시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을 한해 예산안을 들여다본다.

▶ 부분별 예산 내역을 보면 도로 7조7,281억 원 수자원 5조1,076억 원, 물류 등 기타 1조8,619억 원, 해운·항만 1조8,565억 원, 철도 4조2,020억 원, 도시철도 1조 1,462억 원 지역 및 도시 8,976억 원, 산업단지 8,893억 원 등이다.

2009년 대비 눈에 띄는 변화는 그동안 SOC투자의 큰 축을 이뤘던 도로에 대한 예산 배정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다(-17.3%). 반면 녹색성장의 상징 인수자원 부문은 4대강 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79.6%가 증가하였다.

5.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계획

▶ 정부는 4대강 사업을 2010년에 60% 이상 완료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내년에 6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3조2,000억 원은 정부 예산에서, 3조2,000억원은 수자원공사에서 투자한다. 4대강 사업 예산의 증가율은 285.6%로다.

여야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놓고 2010년 세밑까지 격렬하게 대립했지만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보면 4대강사업의 골격이 정부안 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 예산이 4,250억 원에서 국토부 2,800억원으로 하도정비, 보, 생태하천조성, 제방보강, 강변저류지, 홍수조절지, 낙동강 하구둑, 신규댐, 자전거도로, 기타 등이다. 농림부 700억 원 농업용저수지, 영산강 하구둑 등, 환경부 650억 원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100억 원줄어 들긴 했지만, 사업의 내용에 큰 변화가 있을 정도는 아니다. 수자원 공사의 이자 보전 비용도 100억 원이 줄긴 했지만 수공의 채권 발행시기를 조정하면 100억 원 정도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공이 4대강에 3조2,000억원의 사업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4대강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하도준설, 보 설치, 생태하천조성, 강변저류지 및 홍수조절지, 낙동강 하구둑, 자전거 도로 등 다양한 사업을 95개 공구로 분할해 동시 추진하기로 되어 있다.

정부는 2011년에도 최대한 빨리 재정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경제가 연간 5% 안팎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을 보다 확실하게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엔 60.6%를 집행되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시설공사 발주·공고·계약·심사 기간을 70~90일에서 30~45일로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제도,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해 지방비확보 이전 국비 교부 등 당초 2009년 말 종료키로 했던 조기 집행 촉진 제도의 상당 부분을 2010년에도 연장 적요하기로 했다. 공사규모에 따라 선금지급비율을 계약액의 20%~30%에서 30%~40%로 확대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조사기간 단축 등도 계속 적용된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 및 심의기간 단축(250→100일)도 계속 적용되고,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설계심사기간 단축(30일→15일)은 새로 추진된다.(국토해양부 자료) 